

## 고히만 선생

고히만 선생은 1909년 5월 7일에 원동평강  
영해구 스끼도브 군소재지에서. 빈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스끼도브 향촌에서 한일 소학교를 19  
22년에 마감한 다음, 러시아 소학교에 가서 다시 4학  
년에 입학하여 1923년에 러시아 소학을 나온 다음 계속하  
여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하여 초중도 나왔으며, 1930년  
에 고졸을 마감하였다. 고히만 선생은 어렸을 때 부허부  
관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원동에는 이름난 사  
관 학교란 없었으며, 러시아 중앙에 가야 군사학교에서  
공부할 터인데 경제 형편이 허락치 않았다. 고선생은 고졸  
을 나온 후 1년간 향촌에서 소학교 교원으로 일하시고,  
러시아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노자 돈을 번 다음 블라코시에  
가서 1년간 공장 노동자로 일하신 다음, 그 공장에  
서 좋은 평정서를 받으리니, 블라코 육군사관학교에  
1932년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일학년 재학중에, 베세  
르시 항공학교 학생으로 전학하여 1934년에 그 항  
공학교를 졸업하고 항공 전후기 비행사가 되어 항공부대  
에서 비행사로 복무하였다. 1936년에 스페인에서 프랑코  
가 스페인 공화국을 반대하여 내란을 일으켰을 때 소련은

스페인 공화국을 파시즘 강경자들로 복귀 지원하기 위  
 하여 지원병들을 조직하여 파견하게 되었다. 이때에 고  
 히만 선생은 27세의 젊은 비행사로, 또 소련으로 복귀  
 유 일한 한인 지원군으로서, 스페인 상공에서 1936-1937  
 년간 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하여 싸웠다. 그 전쟁에 대  
 한 고선생의 회생담에 의하면, 고선생은 그대에 파츠  
 독일과 이태리 비행사들과 대적하였었다. 고선생은  
 야간 공중전에서 적기를 추락시켰던 이야기 중에서, 자기  
 는 항상 음향한 곳에서 적기를 달빛 속에서 쓰러하  
 고 공격하였다는 것이다. 고선생은 그 불리한 전후와 정복에  
 서도 적기 5대나 추락시켰으며, 수많은 전함포함에서  
 자기의 용맹성을 다 발휘하였으나 파시즘은 끝 끝 내 문  
 리하고 몇몇 남은 지원병들은 프랑스 국경을 통하여  
 소련에 귀국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파시  
 슴에 겁을 먹은 불란서는 스페인 프랑스 국경을 봉쇄하고 인원  
 통과는 전혀 엄금되어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예바루리 호세  
 지아스가 지도하는 스페인 공산당을 돕기 위하여 지원 병  
 으로 스페인에 수로를 통하여 들어갔던 많은 노공산당  
 원들은 별다른 지사 형식으로 비밀히 국경을 통과하여 불란서  
 를 지나고 폴사를 지나 (북북쪽으로 각 나라 공산당원들의 방조를  
 받으면서) 갖힌 고생을 다 하고 위태하다고 부르던 자기

조국에 돌아온 고희만 대위, 비행사는 크다란 풍황과 승급  
 을 희망하던 대신 정반대로, 강제 제대를 받게 되었다.  
 문제는 1937년 12월이 되자, 원종에서 살고있던 전체  
 한인들은 강제 어주당하여 원혜리와 군축은 전부 다 강  
 금 처단한 다음 나머지 늑은이와 아이들만어 품에서  
 아로 싣려왔다. 고희만 선생과 같이 스페인에서 같이  
 전후하였던이러 그들의 지르자로 제시 권대장 미와노보  
 대라는 고희만 선생을 소련 영웅칭호를 수여할려 대한  
 문건을 당중앙 위원회에 내신하였으나, 당은 그 대신 "적  
 기" 훈장을 수여하고, 소련 항공대에서 제대하여 하루  
 속히 민간 생활에 돌리라고, 하면서 그러도 그만 항공  
 크다 있기 때문에, 일본스파이가 항공대에 잠입한것처  
 럼, 검거 처단은 모면하였다고, 국방성 간부국장은 제  
 대장과 파견장을 수여하면서 말하였다. 고희만 선생을  
 불러서 국경을 비밀이 통과하여 불러서 공산당원들이 안내를  
 받을 때만 하여도, 소련에 귀국하면 크다란 풍황과, 놀이 승급  
 될 다음 소련 항공이 가제리아를 끌고가고 자기 예산과  
 같이 생이 맞아 악 날까지 소련 조국에 복무하려 하였던  
 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그 악랄한 고생속에서든 그렇  
 게 꾸꾸런 일은 허공에 돌아가고, 소련군에서 강제 제  
대란 한 생각만 하여도, 그렇게 일련 조국어 그에게

나

그런 꿈에도 기다리지 않던 결론을 내릴것은 생각지 못  
하였다. 그 해만 대외는 간부극장의 사무실 밖으로 나와  
제대장으로, 파견장으로 떨어졌다. 제대장에는 하슈켄트  
시 군사동맹부에 가서 등록한후 일년간 6백원의 군사성  
호에 대한 장악권을 받으라는것이여, 파견장은 하슈켄  
트 비행기 공장 지배인에게 가서 적당한 직무를 받아  
일할것이며, 그에게 급속한 시일대로 사퇴할것으로 해결  
하여 주라는것이였다. 파견장에는 총참모장이라고 쓰고  
수표를 간부극장이 하였다. 소비에트 조국은 그에서 살고있는  
전체 인민들의 조국이며, 그 모든인민들은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향유한다고 항상교양한 내 조국이 또 한아버지보다 더 높  
이 믿은 소련공산당, 그의 지도자 스탈린이 자기에게  
대하여 이런 배신적 결론을 내릴것은 고선생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두봉투를 들고 고선생은 복도  
에서 밖으로 나와 장의자에 앉아 잠간 눈을 돌리다가  
생각하기를 : "자기가 조선민족으로 생겨난것이 원  
석라고" 생각하였다가, 아니다, 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조선민족은 예로 부어 성실하고, 믿음성있는 청백한 인  
민인데 "일본스파어로" 란인하였다는 잘못된 결론은 어느  
때든지 해명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리더  
직무에 임명하여도 끝까지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맹세  
하였다.

고선생은 그 후 2개월간의 휴가를 리용하여 모스크바에서 일개월간 휴식하면서 1938년을 맞은 농구영신까지 지내고 타슈켄트에 도착하여 남은 일개월간 유식자들을 리용하여 많은 친척들과 원동에서 복귀하고 있던 많은 원구들을 만나 옛날의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생활과 강제이주의 쉽고 배고픈 생활의 비관한 형편도 보게 되었다. 이 당시에도 강제이주로 당하여 무르베크항에 실려온 한인들이 칠치크강을 경계로하고 전복과 감우쪽편 무연한 갈밭을 50% 이상 점령하고 사람들의 눈길이 돌아가 기평한 밭은 불과 50% 미만인 농산지대 상, 중, 하 칠치크구역들에만 살 권리가 없고 시내에는 살 권리가 전혀 없었다. 한인 청년들은 대학에서 공부할 권리가 없었다. 이것은 1941년 까지 즉 독소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하였다. 다만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로동자 사무원들이 전선에 동원되어 나가게 되자 그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한인들을 타슈켄트는 시내에서 살 수 없다는 도장을 공인증에 찍고 사증을 받았는데(여권에 사증을 받다)

이런 형편에서로 고희만 선생은 모스크바의 파견을 받아들일 때부터 타슈켄트에서 살 권리를 주고 군사 비밀에 속하는 비행기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다.

고선생은 처음 일년간 생산 공평기사로 일하시다가 다음 3년간

생산 공정 기술총서 기사로 알려선 다음 1943년 연소 부서는  
제트 직장장으로 알려서였다. 고히만 선생은 여기에서 일을 잘  
하시면서 여러번 신문에도 기사가 실리었고, 또 여러번 소  
련 중앙 추양소 들에도 다녀오게 되었다. 1938년, 타슈켄트  
에서 고정적으로 일하게 되자 고히만 선생은 한인들이 집체  
적으로 살고 있는 베틀라르나야 스페스다에 몇번 찾아가서  
옛 친구들을 만나곤 하였다. 바로 어머니에 고 선생은 김영선  
씨를 만나서 자기의 유일한 일생의 동무로, 희망으로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사랑하였다.

1945년 4월 초순에 타슈켄트 84호 비행기 공장장에  
게 모스크바 중앙으로 부하 급속 전문이 왔다. 전 문에 는 간  
단히 "고히만 선생을 3일 이내로 모스크바 당중앙 조직  
부에 도착하도록 대책을 취할 것" 하였다. 비행기  
공장 지배인은 간부장에게 명령하여, 24시간 이내로  
출발하여 고히만 선생은 당중앙 조직부에 도착하도록 할  
것. 고히만 선생은 당중앙에 보낸다는 파견장과 일  
개월 봉급을 타 손에 쥐고 집에 돌아와 내일 아침 비  
행기 편으로 모스크바에 가게 되었다고 자기 복인  
에게 알려왔다. 이렇게 고 선생은 1945년 4월 5일  
에 타슈켄트 자기 집을 떠나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당중앙 조직부에서 어전 부하 잘 알근 지내던 김원봉  
씨를 만나게 되었다.

고허만 선생은 모스크바에서 기원봉씨를 만나서 대  
 단히 기뻐하셨으리라, 앞으로 그 둘이 할사병도 일찍  
 하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에는 결한대였다. 조원  
 최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였었다. 왜냐하면, 할사병은  
 군인이요, 다른사람은 일평생 신을기라였다. 고선생은 김  
 원봉씨를 당중앙에서 한번만나본후 다시는 만나지 못하  
 였다. 고허만 선생은 당조직부에서 파견장을 받아  
 가지고 돌아서러 하느때에 조직부 지도원은 그 곁에  
 서 있는 중위 군관을 가르치며, 그분과 바르 고선생을 보시  
 려 왔으나 따라가시어서 약 3개월간 공부를 하시라  
 고 하시면서, 외계와 면계를 가지지 말고 무엇이 오구  
 될 때에는 김기에게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써서 주  
 었다. 그 이후 고선생은 당조직부의 승인하에 집에다  
 간단한 편지를 쓰면서 모스크바에 와서 몸건강히 잘  
 있으라, 공부를 하라 하였다. 하시면서 앞으로 이곳을 떠나갈때  
 에 다시 편지를 쓸다라 하였다. 고선생은 이 모스크바  
 주변 서쪽 지방 삼림속에 있는, 4-5층 고층 건물들로 들  
 러서, 어떤 광산 노동자 구역 같기도한 특별구역이  
 외국을 위하여 파견하는 정찰학교라는 것은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여기는 학교라고 하나 어떤 강  
 당에서 강의를 청취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별로 자기 숙소에서 고원들의 과제를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였다. 고원생은 여기에서 주로 조선 경제 지리, 정치 제도 지  
 역별 주민 성분, 조선어, 예절, 문화, 풍습, 일제의 경찰 방과  
 군대 등의 주된 구획등을 연구하였다. 8월 초순에 연구과  
 제를 끝마친 다음, 8월 5일에 비행기를 원릉역부터  
 시 25 군단 사령부에 도착하여 집단군 부대, 권입부대  
 들의 뒤를 따라 풍족한 지역인 훈춘, 묵단강, 연길  
 을 걸어서 철도로 조선 땅에 넘어가 8월 말일 경에 평양  
 에 들어서게 되었다. 평양에 도착한 이후 김원봉 씨하고  
 다시 만났으나 그는 그때에 다른 여러 동무들과 함께 조선  
 신문을 "쏘베트 신보"사를 조직하여 북방 연인들에게 배  
 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고원생은 평양 도착 초기에는  
 로마네희 민권사령부에서 산업-공업계통 총역원 역할  
 을 하고 있었다. 조선이 해방될 초기 북방에는 인민기  
 원회가 공장제조소들을 지도한다고 하여로 민권(사령부)  
 사령부 고문(조선군 계통)들이 공장을 경영에 전적으로 참가  
 하였으며, 공장제품의 용도에도 전적 관심을 하였다. 이것  
 은 공장제조소들은 조선영토에 놓여 있으나 전채적인 일  
 분의 것이었다는 리치에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다만  
 1946년 5월에 공장제조소들이 "산업국유화"정책에  
 따라 인민위원회에 소유를 넘어간 다음 북방 고문들의



간섭이 좀 적었지만, 그러나 조선군의 철퇴할 때까지는  
 각공장을 다 고물들이 계속 지로하였다. 그러나 설병은 1946  
 년 4월 북해 성진제철공장 지배인으로 일하시였으며,  
 1947년, 1948년 동안에는 흥남 화학공장 지배인으로 일  
 하시였다. 1948년 말 북해 조선병은 중공업성 제1부상  
 겸 내각적속 근무품 생산 관리국장으로서 일하시였다. 이때  
 에 바로 북한에서는 부장출발을 준비하면서 근무품 생산에  
 전력을 다 하였던바 여기에서 고희만 선생의 역할이 때  
 단 하였던다. 원래 북한에는 근무품 생산이란 것이 없었던  
 바, 이 없던것을 새로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기술리제르  
 필요하였지만, 그 기계들을 다 들들 아는 인재르 필요하였  
 던 것이다. 이때에 김일성이는 산할린의 허가하에 소  
 련서 조국전쟁시기에 다수 건설하여 놓았던 각종공장,  
 방격포 공장, 각종 한약 공장들을 소련 기술리제르들의 지도  
 하에 산에 끌어와고, 사전에 반항공 위험도 예기된 하면  
 서, 잠기 시작하였다 그 공장 설비들은 소련으로 북해,  
 당시 무용지 귀물로 서고있는 공장들의 설비를, 북한으로  
 끌어 오게 하였다. 당시 고선병의 피아기예의하인 공장  
 설비들은 실어다 조립하여 놓고 조업할 준비는 되었으나,  
 설비가 동북한 북한이였으나 철재중에서 자동송, 장송등의  
 충신을 생산할수있는 철재는 북한에 없기때문에 소련으로 북  
 해 구입하여 들여 온다고 하였다. 아마도 그러한 철재는

어떠한 나들에든지 다 잊을 수 있으나, 보통 말하여, 그러한  
 철제의 생산을 조선공업에서 비밀리에 걸어놓고 조선  
 에 할리우지 않았던 것만 사실이었다. 비록 북해 시작하  
 여 북한은 남한으로 화전하는 소위 지리산 비바치산들의 무장  
 설비도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전쟁은 정치의 계속  
 이라고 여는바 북한에서 김일성의 정치에 의하여 계획적  
 으로 준비한 동쪽 상전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날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북한은 불의의 공격으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였으나, 9월 15일에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자 기린맥전단 연변군은 활동강  
 계선으로 북해 후퇴하여 북으로, 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다 9월 25일에 서울은 유엔군에게 점령되었다  
 북한에서는 각 지역들에서, 황해로에 살던 간부들의 가족은  
 구월산쪽으로, 평안남도와 평안도에 살던 간부 가족들은, 평안북  
 강계, 안주, 갑산 지역은 청진 북평까지 후퇴하기 시작  
 하였다 근데의 후퇴는 무장한 사람들이 걸린이라, 먹을 것  
 도, 입을 것도 대강 보강하면서 후퇴하나, 가족들의 후퇴란  
 아주 말하기 어려운 여인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풍분  
 의 길이었다. 이때에 중앙아시아, 내 각의 큰 간부들의 가족은  
 자동차를 타고 남몰래 밤에 후퇴하다가 보면 다 죽지만  
 그런 형편에 보장되지 않는 기타 간부 가족들은 정말  
 처참한 형편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런 형편에 처하여 있는 평양 사동간부학교에서 교원 생활하던  
 노련 출신 세가족: 현희영, 강활렌젠, 장영봉 가족들은 10월  
 15일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평양에서 월급 받았었다 여들의 주  
 안들은 전선에 동원 되었었다. 이 때문에 여소식을 들은 교원들  
 선생은 장미관하 화물 사용과 현대를 얻어 사동간부학교  
 에 파견하여 3세대를 살군 할어 있었다. 만약 어디에  
 고선생의 주현어 없었더라면 이 세대들은 큰 욕을 보았을 것이다.  
 고선생은 전쟁 3년간에 많은 일을 하였으나, 전쟁은 누구에  
 게로 승리를 주지 못하였었다 고 선생은 그 후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그의 복구에 대한 문제와 또  
 새로운 공장시설 들은 북한에 있어서 서울 문제가 제기되  
 자 당중앙은 고선생을 총괄하여 중앙당 건설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때문에 바르 즉 1954년 부터 시작 하여  
 북한에 자용차 공장, 트랙터 공장 등을 세로 건설하  
 12, 성원 제강, 홍남 비료, 황남 제철, 평양곡산 공장 들은  
 재 러시아에서 다시 빌려 세우면서, 수많은 방직공장, 직조  
 공장, 고무공장 및 식료품 공장 들을 건설하였다.  
 북한에서 사상 최초로 운송어고도에 달하던 1956년에는 벌써  
 교원들이 조직한 일꾼 벌써 식량 문제를 쓰고 초과하여  
 보면서 여러가지 접할어 시작 되었다. 그러나 반조거등  
 김삼만이는 대낮에로 상불을 켜고, 교원들 선생이 조직한  
 일에서 결점을 찾고 있었으며, 그 것이 아닌이런 조작하여 냈다.

고선생은 당중앙 건설부장 직에서 1954 - 1956년까지  
 일하시던, 1956년 말에는 퇴직상으로 조종되었다. 수완이  
 많은 중앙당 간부들은 간부들을 취직, 취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별한 수단들을 리용하였다. 아주 신익계 높이 등용되던 간  
 부들을 취직함에 있어서 단번에 상직부에서 조동자로 강직하  
 기에는 군중의 여론을 무시하지 않지 점차적으로 그 직급을 감  
 하 식히는 방법을 썼다. 이런 수단으로 고허만 선생도 처음  
 중앙당 부장, 다음 상, 다음 리업노 소장, 다음 리업노 조동  
 자로 강직하며 1959년에는 리업 조동자로 끌려 당내에  
 일하시었다. 고허만 선생의 부인 김영선 씨는 딸 하나  
 아들 셋째를 데리고 있으면서 1960년 1961년 기간에  
 는 양강도 리업노에 고선생을 연회하려 찾아가려면 갖이고  
 간물건을 전달한 외 연회 시간은 5분씩 갖일 수 없었다. 이  
 것도 몇 년에 2차, 더는 리용하지 않았다. 고선생의 사모  
 녀는 구아어들로 데리고 계속 평양에서 더 살 수가 없었다  
 그것은, 고허만 선생에게서는 봉급이나, 복직이나 바라볼 것  
 이 없었고 평양에서 푸른 배급도 사볼 수, 3명의 아이들  
 은 매일 배급당 쌀 100그램, 잡곡 200그램, 이것을  
 가지고 죽을 끼리 먹는다 하여도 허만 부족이었다. 소련  
 대사관에서 어떤 소련공원이려 하여 쌀이나 밀가루 얼마씩  
 주나, 이것도 구입할 수 없는 돈이 타고 권혀 없었다. 이런 형

편에서, 소련 대사관에서 돈도 없고 식량도 조금씩 떨어지던  
 면서 살고 있다가 김영선 사모님은 1961년 9월에 교회  
 안 성령에게 연회감을 시어, 그 절박한 시간에 많은  
 누룩하시고 인제는 자기한테 더 찾아보지 말고, 아이  
 들을 데리고, 집에 있는것을 다 팔아가지고, 소련에 있  
 는 친척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이나 살구라고, 열정하게 알  
 씩하시고, 인제는 나는 다 죽은 몸이니, 내 생각을 더 하지  
 말고, 피안남을 화직으로 인정하면서, 영선씨 대단  
 히 고압성, 나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오, 하신  
 고 대면실에서 돌아서서 속소에 가시는것을, 영선사모님  
 은 오래 동안,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울면서 바  
 라본었다. 영선 사모님은 그 대면실에서 돌아서 나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곳은 이십여년 이상 생각을 갖  
 어하여 삼남매를 같이 재태와 앞으로 늘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영영 같이 살자고 하던 그어와 그  
 방에서 생이별을 할것어만 누가 알았을가? 영선사  
 모님은 기적 남수하신 뜻 끝에 백로 돌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어를 어곳에 떨어뜨리고 돌아선다는것  
 은 꿈에도 상상할수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복잡하고 무  
 겁을 시간으로, 그시간의 내용과 목적은 알러만, 모르는 체  
 하고 영선사모님의 뜻을 이룬 대면실에서 무직 당한 의두  
 손의 힘만이 영선사모님이 바라는대로 우리에게 하였다

그후 명선씨는 계곡을면서 평양에까지 돌아와 고허만  
 선생이 <sup>말씀하신대로</sup> 보련 대서관에 가서 임곡허가권  
 신청하고, 길에가면서 <sup>말씀하신대로</sup> 아이들의 이복만 남기고  
 전부다 용양 팔아 겨우나 하유권은까지 갈복있는 기차  
 표를 <sup>예었다</sup>. 김명선 사모님은 양강로 연업소에서 집에  
 돌아온 후 12월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련으로 <sup>예었다</sup>  
 비를 다 한다음 보련 대서관에서 돌려준 자물쇠에 집은  
 실고 평양 역전에 나와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모스크바 도착후 외국에서 간단  
 한 숙소를 받았는데 그리안으로 보련 무역성 <sup>본</sup>간판에 가서 몇가  
 지 숙적이 없었후 보조금 5천 루블리와 아이들의 보조금 12인  
 당 1개월 200 루블리씩 <sup>숙</sup>숙 받은 다음 하유권은에 도착하  
 면 중앙당 조직부에 찾아가서 아이들의 공북문제, 명선사모님  
 의 취직문제 및 사학 문제까지 해결받으라는 편지를 보내  
 받은 다음 곧 하유권은에 도착하였다. 우즈베크 공화국 당  
 중앙 본부에서는 모스크바에서 지시한대로 고허만 선생의  
 가정의 요구되는 문제를 전부다 만족하게 해결하여 주  
 었다. 명선사모님은 모든 문제들이 일고온 예산과 똑같이  
 해결되자 자기 행복, 고허만 선생의 행복들을 전부다 찾  
 아 다니며, 사별은 <sup>말씀하신대로</sup> 편지내용의 흥제 문제를  
 하여 불부하였던 그 모든 글곡의 곡절들을 털어놓고 이야  
 기 하면서, 물론, <sup>말씀하신대로</sup> - 12월같이 <sup>말씀하신대로</sup>

을 보시고, 노병에 온지 약 6개월이 지나자 다시 노병 외부  
 성을 흥남에 복합에 갈 비자를 취득하였다. 친척들이 불의  
 중등 등에서 약간의 금액만 자기가 갖다가 몰사하여 1억  
 살라고 하면서, 자기가 돌아오면 일을 본격적으로 할터이니  
 1억 사돈 문제는 해결되다하시고,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평양  
 에 도착한 후 노병대사관 영사부에 등록한 다음, 공장 양장  
 도 작업소에 고혜안 선생을 찾아갔다. 영선 사모님은 한련전  
 에 와서 다녀간 길에 구하여서 임무선 에로 드 없이 그 립업소  
 접대실에 찾아가 고혜안 선생을 찾았다. 립업소 접대실장은  
 장복을 프러롬인 보다가 그 럼양 받은 본 립업소에 양계신다고  
 대 상하였다. 김영선 사모님은 접대실장에게 질문 하시  
 기를, 왜, 작년 9월 15일에 자기가 친히 와서 데려와  
 고 가셨겠는데, 왜 없습니까? 고이가 어디로 전근 되었음  
 니까? 하곤 물으니, 실장은 그 일을 자기가 모르니 립업소 소장을  
 찾아 물으라고 하였다가, 다시 말하기를 립업소 간부에게 찾아가  
 물으면 알겠어라고 하였다. 립업소 간부장을 찾아 물으니, 그는  
 간부 대장을 내놓곤 보여면서 말하기를: 작년 2월 부일에  
 중앙당 간부부에서 온 지도 원어라고 하면서 교선생을 중앙당  
 간부부에서 속히 데려 오라고 하기에 제가 직 접 왔다고  
 하면서, 교선생을 모시고 보통 비버스를 갖라고 하였다. 영선사  
 모님은 그 프록에서 비버소 역전에 나와 비버스를 타고 립업소  
 에서 떠나 평양으로 향하였다.

김영선 사모님은 평양에 도착하자 중앙당 간부들에게서  
 고위당 선임을 어디로 권유하셨는가 하고 물으니, 그곳에서는 들  
 으니 최노리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고위당 선임을 간부들에게 부탁  
 이 없다고 하였다. 그 즉시로 영선마그너니는 쓰련 대나갈 영선부  
 데 가서 고노 하였다. 또 다시 양강로 침입에 갔다왔고, 또 다시  
 당중앙 간부에게 갔지만,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대답은 한가지  
 였다.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영선마그너니는 6개월전에 들어  
 갔다해서 말하고 갈라진 지리 남편은 김일성의 모을 탄에 걸려서  
 갓쪽같이 잃어버리고, 모든 흥분의 연기는 주절리였다. 이것어 반  
 년전에 쓰인 김두환의 잡채사건과 과연 흡사하였다. 그도, 당중  
 앙간부에서 가다가 어디에서인가 공로에서 잡채리여 잃어버  
 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영선 사모님은 평양에서 여 해두면서,  
 고선생을 찾고 찾았으나 전무노획으로 다시 쓰련에 돌아와 경석  
 쓰련 공산당 조국익 부장에게, 쓰련 외무상에게, 쓰련 국방성에 공선  
 영민 정복 어머니로 자칭한 김일성 주석에게 부탁 관련 지를  
 썼으나 어디에서나 단 한가지 대답! 행처를 알수없다는 것  
 이었다. 이것은 조선로동당 간부정체가 어떠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이후 김영선 사모님  
 은 매월 같이 조선에서 기별 소식을 담은 편가 오는가고 매월  
 같이 기다리며 앉다가 1978년에 눈을 감지 못하시고 별세  
 하시었다. 그 이후 아들 형제와 딸은 북으로 유언을 지키  
 면서 오늘날까지도 영민생활에, 사회생활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정체가 하루속히 풀리리라고  
 새로운 전면전적 민족주의적 정체가 세워질것을 기다리고  
 있다. 고위급 선봉이 가장 위협이 하던 딸 다나는 벌써 선  
 생의 생전에 레닌그라드 종대 어문학부를 졸업하고 북한  
 김대에서 교원으로 일하다가 어머니와 같이 귀환한후 현재  
 아이들 3남매를 데리고 모스크바에서 행복하게 살고있  
 으며, 장남 교학들은 1967년에 켈리노 그라드 건설대  
 학을 1968년에 졸업하고 현재에 켈리노그라드 시 공학  
 관리 부장으로 일하면서 1961년에 가정을 더 풍족하  
 아 들 2남매를 가지며, 딸은 알라타에서 살고있고,  
 아들은 사관학교를 나온후 현재 장봉시에서 정주군  
 중좌로써 군대에 계속 복무하고 있다 고선생의 미남은  
 유물재가메노골로진 작동화 옆도로은후 더후를 나온후  
 현재 가라을보단 자동화 유물재에서 행정적 강부  
 로 일하고 있다 장남 교학들은 가자은 공화국 민족  
 통일 주국 전선 상임위원으로 열심히 일하고있으  
 면서, 조국통일을 앞당겨 북한의 언변을 하루속히, 김정은  
 의 세습 독재 체제에서, 기다에서, 허벗고 너는 거어지  
 형포에서 해방하기 노력하면서 1997년 10월 주국  
 전선 동경 대회에 참가하여 자기서사를 발표하였다.

1997년 11월 5일 알라타에서.